

뜨거운 삶과 예술혼 이은 제자들의 정성 '따뜻'

불화승의 도량 마곡사

마곡사 부도밭은 불모들의 생애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사찰을 장엄하는 불모들. 불모란 말을 직역하면, 부처를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니 그 역할의 귀하고 성스러운

널찍하게 마련된 터에 말쑥한 부도와 비석들이 각자의 위용을 전체의 조화로 어우르며 서 있습니다.

부도들은 팔각원당형을 계승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불모들이 선대 스승의 부도를 조성한 것이니 그 조형성과 정성은 한 눈에 파악이 됩니다. 부도 보다는 비에 눈길이 더

은 유랑길식을 하며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16세에 예산 화암사로 출가하여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절에서 행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스님들은 탁발을 하여 끼니를 해결했으니 때가 되면 밥 얻으러 다니는 일은 여전했고 그것이 고역 중의 고역이었나 봅니다.

금호 스님이 초를 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밤어사 나한전의 16나한도 범주사 팔상전의 팔상도, 감사대웅전 원화도 등 100여 점의 작품에 금호 스님의 흔이 담겨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호 스님의 화맥(畫脈)을 이은 화승은 1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정연 스님과 보응 스님이 우뚝한 가풍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정연 스님의 뒤는 지정 스님이 있고 다시 병진 스님이 그 맥을 이었습니다. 병진 스님은 고양시 장안사에서 금어원을 열어 불화의 학술적 연구를 진작하면서 실기에도 공을 들이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응 스님의 뒤는 일섭 스님과 우일 스님이 계승하며 금호 스님의 화단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를 원만히 회향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일섭 스님의 비도 더듬어 읽습니다. 일섭 스님은 어려서 송광사로 출가하여 화재(畫才)를 인정받고 마곡사로 찾아와 보응 스님의 제자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불화 불상조각 단청 등 분야에서 당대최고로 꼽혔습니다. 비문에서는 불모로서의 뛰어난 솜씨와 함께 검소한 생활과 후학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그 인품을 돋보이게 한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옆의 '명성우일불모비'를 읽습니다. 이 비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은 귀부가 아니라 3명의 동자들이 연꽃 받침을 둘러메고 일어선 동자를 취하고 있어 독특합니다. 1910년 나라가 일본사람들의 손으로 넘어 간 그 해에 계룡산 산촌에서 태어난 우일 스님은 세속에서 보통 학교를 마치고 열 아홉의 나이에 동학사로 출가 했습니다. 보응 스님의 불사 현장을 보고 마음이 끌리어 문하로 들어가 붓을 잡았는데 숨겨져 있던 기예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몇 해 만에 스승을 보좌하고 직접 출초를 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문의 말미에 우일 스님의 작가 정신이 보입니다. 스승인 일섭 스님이 일찍이 마곡사에서 금호 스님에게 불화를 배웠습니다. 불화를 배우는 초기부터 일취월장의 기예를 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



마곡사 불모 비림에는 신앙심과 예술혼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불모들의 삶이 어려있다.

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모를 존대하는 말이 금어(金魚)입니다.

사찰이란 불모들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신앙적 의미를 얻어 종교의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사찰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법의 세계가 됩니다.

전각마다 불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그 불보살의 격에 맞는 탱화나 목각탱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팎의 기둥과 서까래 들보 등에는 화려한 색상의 단청이 장엄되어 있고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뜰에는 탑이나 석등이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고 돌계단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 차 있습니다.

가는 것은 불모들의 생애와 족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탓입니다.

마곡사를 중심으로 하는 화파를 계룡산화파라고 합니다. 근현대 계룡산화파를 일군 금호 스님의 부도와 비는 뒷줄 중간에 사각의 돌난간

금호 스님이 화승(畫僧)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바로 탁발 다니는 고역과 연관이 있으니 말입니다.

화암사에 모셔진 탱화들이 남아 새로 탱화를 모시는 불사가 시작되고 화승들이 절에 머물며 그림을

'계룡산화파' 이룬 금호 스님과 제자들 마곡사 위상 세워 일섭문도회, 비림 조성으로 스승들의 예술혼 후대로 이어

을 두르고 있습니다. 금호 스님은 충남 예산에서 출생했으니 마곡사와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어려서 양친을 여리고 전에 고아가 된 스님

그리는데 행자인 금호 스님에게는 화승들이 탁발 나가지 않는 것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화승이 되면 탁발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도 생긴다는 말을 듣고 붓을 잡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어찌 탁발이 이유였습니까? 다짐생대로 이어오는 기원이 있었기에 수 만 장의 초(草, 밑그림)를 그리며 기초를 연마했고 10년이 채 안되어 도원수의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또한 출중하였으니 금호 스님이 조실부묘한 것이나 유랑길식을 하다가 절에 들어와 화승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불보살님이 안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의 삼신불도가

업을 시작하면 회향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였을 것입니다.

석정 스님이 찬한 비문에는 재미있는 일화 한 토막이 전합니다. 보응 스님이 선운사 팔상탱화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흥년이 들어 불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탱화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화광(火光)이 충전하여 절에 화재가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길기 아니라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 방광(放光)이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시주가 들어와 불



보응 스님의 비를 얹은 귀부 갑문 모양.



금호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마곡사 불모계보.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절박한 현실에서 발견한 선(禪)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③



경허 성우 스님은 천장암 등 명산고찰을 다니며 설법을 펼쳤다.

“홀연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목(天真面目) 절묘(絶妙)하다. 아마타불 이 아니며 석가여래 이 아닌가? 젊고 않고 늙고 없고 크고 작고 적도 없고, 본래 생긴 자기영광(自己靈光) 개천개지(蓋天蓋地) 이라고 열반진락(涅槃眞樂) 가이 없다. 지옥천당 본래 공(空)하고 생사윤회(生死輪回) 본래 없다. 선지식(善知識)을 찾아가서 요연(了然)히 인가(印可) 받아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만사 망각(忘却)하고, 수언방광(隨緣放曠) 지나가되 빈 배 같이 떠돌면서/ 유연중생(有緣衆生) 제도 하면 보불은덕(報佛恩德) 이 아닌가?”

몸이 풀끓에 이슬이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는 대목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절절히 알려주는 듯한 이 구절은, 그러나 이 구절만 되뇌고 만다면 애당초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스님이 하고픈 말은 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참선을 하느냐?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이 아니다.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홀연히 깨달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서 무엇을 할까? 유연중생을 제도하여 불보살의 은덕에 보답하고, 대원력을 일으켜 항상 불학을 따라 익히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 외에 불법 익히는 목적이 또 따로 있을 게 무엇일까? 참선을 달리 닦을 필요가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福壽)하고, 대원력을 발하여서 항수불학(恒隨佛學) 생각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 마음먹어 빈병걸인(貧病乞人) 팔시(袈裟) 받고, 오온색신(五蘊色身) 생각되 거품같이 관(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逆順境界) 부동(不動)한 이 마음을 태산(泰山)같이 써 나가세.”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던 스님이 내내 안타까워했던 것은 자명하다. 불법은 조선 5백년에 쇠하였고, 열강의 침탈은 경각인데, 그 악다구니 속에 중생의 고통은 필경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시대, 중생을 구해야 할 불법이 오히려 그 중생에게 의지하여 실낱같은 숨을 면면히 이어갈 뿐인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의발을 누가 전할 것이며,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 것(衣鉢誰傳 衣鉢誰傳)'이란 말인가. 애써 명맥이라도 이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온몸, 온마음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스님이 지은 '참선곡(參禪曲)' 중의 한 대목이다. 그런데 기실은 스님의 '참선곡'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은 "홀연히 생각하니 도시몽중(都是夢中)이로다. 천만고영웅호걸 북방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나. 오호라 나의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경사

연등승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